

지역 소식통

고창문화관광재단, 문화 예술 박람회 우수사례상

고창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문화예술·관광 박람회'에서 '지역문화 우수사례상'을 수상했다.

전주시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전국 기초문화재단 122곳을 대상으로 △문화매개 △지역소생 △문화기획 △재원조성 △문화협치 △문화향유 등 6개 부문에서 총 25개의 지역문화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재단은 지난 4월에 전국단위 캠프 관광객 200팀(약 7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2024 고창 별밤 그린캠프'가 지역소생 부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우수사례상에 선정된 고창문화관광재단의 우수사례 전시부스는 오는 6일까지 전주 팔복 예술공장에서 진행되는 '2024 대한민국 문화예술·관광 박람회' 우수사례 전시관에서 만나 볼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 '일.구.데이' 개최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정읍새일센터)는 지난 3일 여성문화관에서 미니취업박람회 '일.구.데이(일자리 구하는 날)'를 개최했다.

이날 박람회에는 △현장 면접 등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 채용부스 △구직상담과 이력서 컨설팅을 지원하는 취업 지원부스 △정읍고용복지센터 홍보 부스 △시정신건강증진센터, 전복새일센터, 광역새일센터의 부스가 운영됐다.

기업 채용 부스에는 (주)아주산업, 근로복지공단 정읍어린이집, (주)로봉방제과, 내부모커어주강복지센터, 성공회행복노인복지센터, 손길노인복지센터, 참사랑나눔주강보호센터, 천사노인복지센터 등 8개 구인처의 인사담당자가 참여해 현장에서 구직자와 1:1 면접을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현장에는 직업교육훈련 수료생, 앞둔 교육생을 비롯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80여명이 참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로컬푸드 인증제 본격 시행

일정한 안전성 기준 적용 인증마크 표시... 농가·소비자 상생 도모

부안군은 이달부터 로컬푸드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먹거리 안전성을 공인하는 부안 로컬푸드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안 로컬푸드 인증제는 산지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등에 일정한 안전성 기준을 적용하고 인증마크를 출하 상품에 표시하는 제도다. 군은 올 상반기 로컬푸드 인증과 관련한 규칙을 제정하고 인증을 위한 농산물 안전분석실 준공 등 제도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으며 지난 6월 시범 운영을 거쳤다.

우수사례상에 선정된 20개 농가가 참여

를 신청했으며 안전분석실을 통해 검증한 결과 56개 품목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신청 전 인증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농산물은 463개 항목의 잔류농약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축산물은 무항생제, 유기축산, 해썬(HACCP) 인증이 필수며 가공식품은 부안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원·부재료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인증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날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직매장의

주요 방문 사유가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수시로 유통 중인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검사 결과 잔류농약 검출 등 부적합 농가는 인증이 정지되거나 취소하는 등 엄격한 인증제 운영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안 로컬푸드 인증제 전면 시행으로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생산 농가는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득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동행을 시작했다.

"양 도시 동반 성장 계기 될 것"

전북자치도 고창군-강원자치도 정선군, 자매결연 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동행을 시작했다.

4일 오후 정선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고창군 대표로 심덕섭 고창군수와 국장 관련 부서장 7명과 정선군 대표로 최승준 정선군수, 강선구 부군수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양 도시는 서로의 자원을 최대한 공유·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교류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주민들의 이익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두 지역의 행정·문화·예술·관광·산업·경제분야 등

협력 △관광활성화를 위한 상호 관광 자원 홍보 △행정 우수사례 정보교류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양 도시가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여러 분야에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교류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민족 정서를 대표하는 이리랑의 발상지이자, 천혜의 산림관광자원이 풍부한 웰니스 관광도시 정선군과의 자매결연은 고창군이 새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미로분수' 6일부터 운영... 볼거리·즐길거리 '기대'

정읍시, 정읍천에 복합형 바닥분수 설치... 민선8기 공약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 일환

정읍시민과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정읍천에 새로운 명소가 모습을 드러낸다.

시는 시가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정읍천의 하천 둔치(시가동 225-3 일원)에 복합형 바닥분수인 미로분수를 설치하고, 오는 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시설은 민선8기 이학수 시장의 공약사업인 정읍천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국에서 처음 선보이는 복합형 바닥분수인 미로분수는 음악분수와 물놀이 시설을 결합한 것으로,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지 않을 때 13일부터 내달 18일까지 미로분수를 물놀이장으로 개방한다.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를 위해 임시 그늘막과 남녀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설치했다.

또한 시는 올해부터 정읍천 청소년



시·8시), 주말에는 3회(오후 7~9시) 가동되며, 오는 10월 27일까지 운영한다. 시간대별 연출 시간은 20분이다. 시는 편안한 관람을 위해 정읍천 제방을 이용해서 60석 규모의 자연 친화형 관람석도 함께 만들었다.

물놀이장을 운영하지 않을 때 13일부터 내달 18일까지 미로분수를 물놀이장으로 개방한다.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를 위해 임시 그늘막과 남녀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설치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생태계교란생물 대대적 퇴치 추진

부안군은 7월부터 9월까지 동진강 하류 및 변산반도 해안 등지에서 서식하며 우리 생태계를 위협하는 생태계교란생물을 퇴치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군은 국비 등 총 2,000만원을 투입해 부안군의 생태를 잘 아는 주민과 합동으로 생태계교란생물 퇴치단을 구성하고 동진강변 및 관내 해안가 일원에서 자생식물 서식지를 잠식해가는 해치는 양미역취, 가시박, 서

양금혼초의 서식지 약 2만5,000㎡를 제거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환경부에서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된 가시박은 북아메리카 원산의 한해살이 덩굴식물로서 국내에는 수박의 병해충을 예방하고자 들여왔으나 주변 식물을 휘감아 고사시키고 번식력이 강한 특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퍼졌고 이로 인해 '식물 생태계의 황소개구리'로 불리고 있다. 생태계교란생물인 서양금혼초는 흔

히 '개민들레'라고 불리며 유럽 지중해가 원산이나 우리나라에 반입된 이후 토양과 추위에 강하고 제초제를 살포해도 잘 죽지 않아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양미역취는 뿌리에 독성이 있어 다른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성장세가 매우 강해 부안군 동진강변 일대에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신청자 모집

정읍시가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농업창업 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세대 당 농업창업 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은 최대 7500만원 한도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의 신용과 담보 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연 1.5%)이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금액은 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 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 자격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65세 이하(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세대주면서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 자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 정읍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이다. 또한 귀농 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재촌 비농업인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고 사업신청일 현재 정읍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귀농인으로, 거주기간과 교육 이수 실적을 만족해야 한다. 귀농희망자의 경우 귀농인의 지원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